

2024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4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미래비전 계획서

■ 제1장 조직소개

● 조직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허인영 이사장(사단법인 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 김건우 이사(좋은씨앗교회 담임목사) 신경철 이사(전 ㈜유진로봇 대표) 심명식 이사(좋은씨앗교회) 이경림 상임이사 박을중 감사(전 성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경현 감사(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설립년월일	2015.3.30.	상근직원 수	16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77, 1층		
법인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임의단체 ☐ 공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홈페이지	iseum.or.kr	모 법인명	-
공익법인	Y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조직의 설립목적			
가족의 수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용자자녀들이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로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실천 및 경제적 지원을 하며, 교정 복지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수용자자녀 지원,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용자자녀를 위한 복지, 상담 및 지원사업 2. 수용자자녀를 위한 후원사업 3. 수용자자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 4. 수용자자녀에 대한 홍보·국민 인식 개선 사업 5.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국·내외 단체와 교류활동			

● 조직의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설립 후, 누적기부금 총액 (~2023) : 8,521,367,835원
- 최근 3년간 수익비용 내역 :

	2021년(연말)	2022년(연말)	2023년(연말)
수익 총계	1,364	2,026	2,087
재단 지원금 총액		1,030	1,000
비용 총계	907	1,414	1,905

● 주요 사업(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수용자자녀지원	수용자자녀의 통합적 개별지원, 성장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 멘토활동 통한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수용자 가족지원	수용자자녀와 가족의 심리 상담, 양육자교육, 면회지원, 가족상담, 출소자 가족여행 등을 통해 가족관계회복
인권옹호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수용자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 조사연구를 통한 수용자자녀 인권옹호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 주세요.

Ex. #환경 #IT #기술 #사회복지 #알권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수용자자녀 #아동인권 #아동복지

■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제2장은 전년도에 작성하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정 가능)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술 (왜 문제이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

1.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취약 위기아동(Invisible Children)

사회 구조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기준 또한 빠르게 바뀌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의 변화가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사회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오늘의 사회복지의 시스템 (발굴-지원-개선)에서 시대적으로 더 집중해야 할 단계의 영역은 '발굴' 단계이다. 지원 영역과 개선 영역 대비, 사회복지가 필요한 문제 영역에 대한 인식과 조사, 발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취약 계층 본인이 자신의 '취약' 상황을 호소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와 소통 능력의 부재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스스로가 자신들의 취약성을 숨기거나 감추고 싶어하는 '취약 계층'이야 말로,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으로는 '보이지 않는' 계층으로 존재한다. 바로 수용자 자녀가 우리사회 가장 보이지 않는 취약 계층이며 스스로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invisible children이다.

스스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수용자자녀의 고통은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일차원적으로 겪지만, 경제적 고통 해결 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정서적 고통과 함께, 향후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며, 매우 복합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단순한 개별 영역의 개별 접근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지난 5년간 세움의 경험과 성과는 바로 사회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성공적 접근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2. 아동 인권보호의 필요성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양육할 능력을 갖춘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동은 보호 대상 및 지원 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조).

그러나 우리사회 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제2의 피해자, '잊혀진 피해자'로 살아가는 위기가동이 있다.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0.5%의 수용자자녀!'**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할 '모든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자녀들은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감을 경험하며 '가족 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경제적 위기, 심리정서적 불안정, 트라우마, 가족해체 등 여러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아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쉽다. 2017년 세움이 국가인권위원회 위탁을 받아 진행한 「수용자자녀 인권현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의하면 수용자자녀들은 철저히 복지사각지대에서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수용자자녀도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자녀'도 대한민국 아동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복지적 지원과 인권이 보호받아 할 권리가 있다.

3. 수용자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1) 경제적 어려움

국내외 수용자자녀 연구조사에 의하면 가족의 수감으로 남겨진 수용자자녀와 가족은 일반 가정에 비해 5배 높은 빈곤을 경험하며 아동의 양육자의 경제활동 또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세움에 의뢰된 수용자자녀들의 경우에도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 주거환경의 불안정 등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청과 욕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17년 실태조사 양육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지원에 대해서 **'아무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용자자녀의 가족이 76.2%**로 가장 많았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1.9%, '한부모가족지원' 5.3%, '긴급복지지원' 4.5%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정은 11.9%였는데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수급비율이 2.3%에 비해 5배나 높아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수용자자녀는 우리사회 가장 취약한 아동으로 이들이 겪는 경제적 위기 환경은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수용자자녀들이 처한 긴급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2) 심리정서적 어려움

2015년 세움이 국내최초로 수용자자녀 20명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건강검진(심리검사와 정밀검사)을 실시한 결과 **약 40%의 아동이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¹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수용자자녀들은 심리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으며 고통받는다. 특히 부모의 체포과정을 목격하게 될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2017년 실태조사의 수용자자녀 설문조사에서 **약 6.3%의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다고 응답해 아동인권 침해의 문제 뿐 아니라 수용자자녀가 마음의 상처와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자자녀들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세움의 상담에 참여한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의 수감 이후 심리정서적 어려움 외에도 가족관계나 친구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부적응, 신체화 증상, 자살충동 등 심리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²

"요즘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식욕이 없고 다 귀찮고 힘들어요."

"예전에는 감정이 풍부해서 밤새 운 적이 있어요."

"아빠 들어가고 아무도 없을 때.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참여자1

"한 맺히고 불안하고, 심란해요. 열등감, 자괴감이 들어요."

초등 저학년 때의 내가 그리워요. 시험을 잘 봐도 감흥이 없고, 죽고 싶어요.

힘든데 말할 친구들이 없을 때 공허해요. '체념한 보살'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2

¹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 2021, p.9

²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 2021, p.33

4. 위기아동 보호의 필요성

수용자자녀 5명 중 1명 정도가 심리정서적 문제와 학교부적응 문제에 직면하고, 10명 중 1명 정도는 비행으로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유형 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수용자자녀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³

수용자자녀들은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 및 지원 대상 아동'이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 청소년'에 해당된다. 부모의 수감이라는 위기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자칫 소년법상의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되거나 부모의 범죄를 대물림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용자자녀의 범죄연루 확률은 평균 약 32%로 나타났다.⁴ 따라서 수용자자녀 지원을 통해 부모의 수감 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요인들을 차단하고 수용자자녀들을 보호한다면 궁극적으로 '제2의 피해자'인 수용자자녀들이 환경적 요소들로 인해 부모의 길을 답습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5. 가족관계회복을 통한 수용자의 재범 예방

2017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수용자자녀의 가정은 일반가정보다 이혼율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의 수감과 동시에 한부모 가족이 되거나 양육자가 2-3회 변경되기도 한다. 친인척에게 맡겨지기도 하고, 가정위탁, 시설에 보호되기도 한다. 미성년 자녀들끼리 살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수용자자녀들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반해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부모의 수감으로 안정된 가정형태가 깨어지면서 수용자자녀의 가정은 가정해체 위기에 놓이게 된다.

가족은 수용자 및 출소자의 중요한 지지자원으로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다.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었을 때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고 출소 후 건강한 시민으로 가정에 복귀하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돌아갈 가정이 있는 출소자들은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 안정적으로 건강한 사회시민으로 사회복귀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결국 가족은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된다.

³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자녀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 pp.8-9

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세움 5주년 사회적가치측정, 2020. p.23

세움은 비록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면회지원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복역률은 약 25.4%이지만 세움의 지원을 받았던 수용자 가족의 출소 3 년 이내 재복역은 5.7%로 나타났다⁵ 결국 수용자자녀와 가족관계회복을 통한 지원은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⁵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세움 5주년 사회적가치측정, 2020. p.24.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1. 프레임워크 소개

세움의 미션은 '수용자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며 미션 달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문제해결모델을 가지고 있다.

1) 타겟 : 부모의 수용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수용자자녀

세움에서 진행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 중 25.4%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명수로 환산하면 연간 약 54,000명(누계)의 미성년 수용자자녀가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약 0.5%에 해당한다.

1차 타겟 집단 :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간 54,000명의 수용자자녀 중 상존하는 일일 평균 수는 약 22,0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약 50%정도가 자신의 가정 경제 수준을 좋지 않거나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수감 후 경제적 빈곤과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세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위기 수용자자녀는 최소 일평균 약 11,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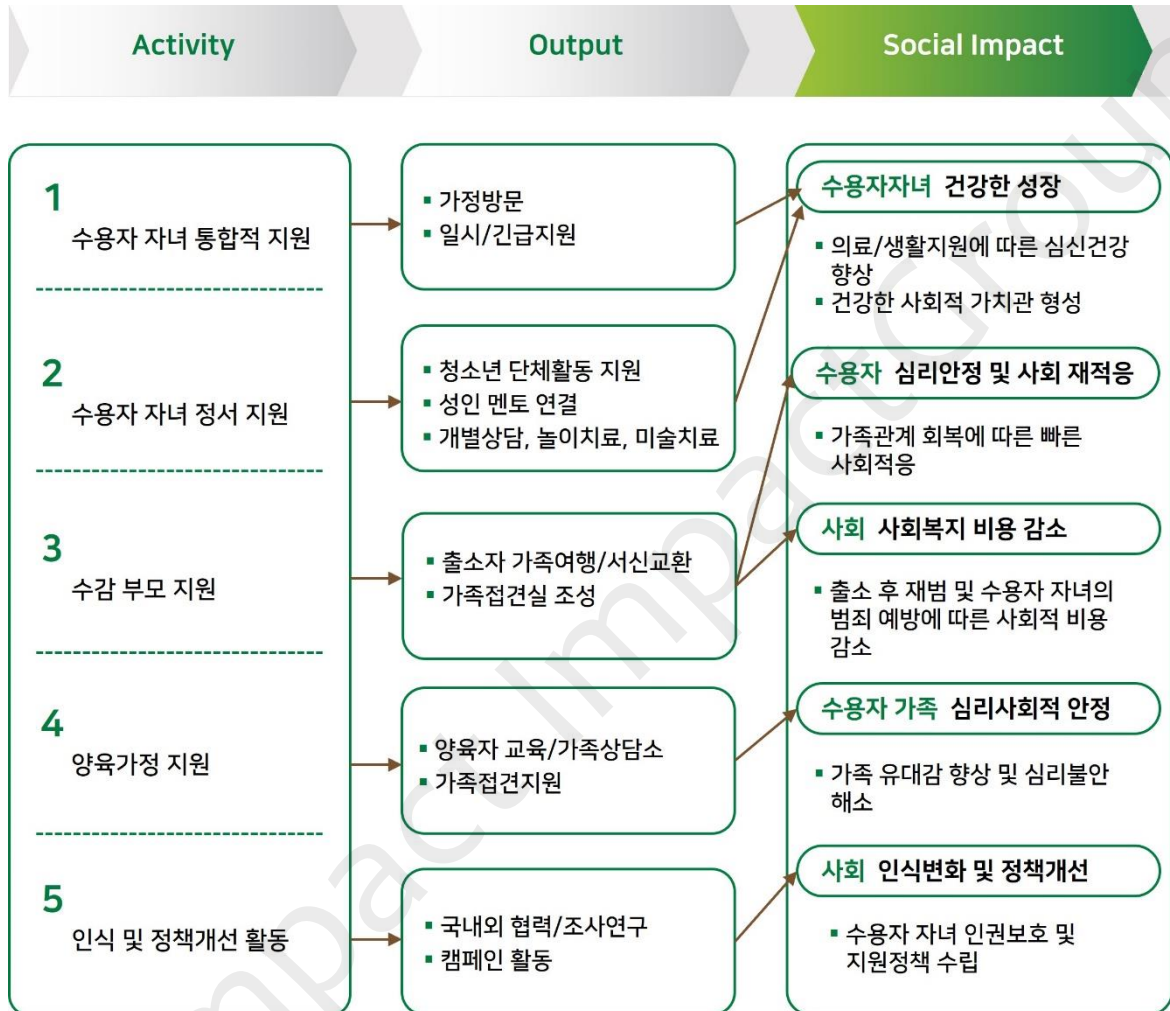
전체 수용자자녀 중 1차 타겟 집단은 고위험 위기수용자자녀 일평균 11,000명으로 볼 수 있다.

2 차 타겟 집단 :

부모의 수용을 경험한 모든 아동

2)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1) 수용자자녀 문제해결 모델



[그림1] 수용자자녀 문제해결 모델

수용자자녀 통합적 지원 및 정서지원

가정방문, 성장지원비, 긴급일시지원, 심리상담, 청소년활동, 멘토링활동 등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와 욕구에 따라 수용자자녀가 위기환경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용자 가족 지원

면회지원, 양육자 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출소 후 재범 및 수용자자녀 범죄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한다.

인식 및 정책개선 활동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국내외 네트워크 및 조사연구를 통해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 및 정책기반을 다진다.

(2) 수용자자녀 지원프로세스



[그림2] 수용자자녀 지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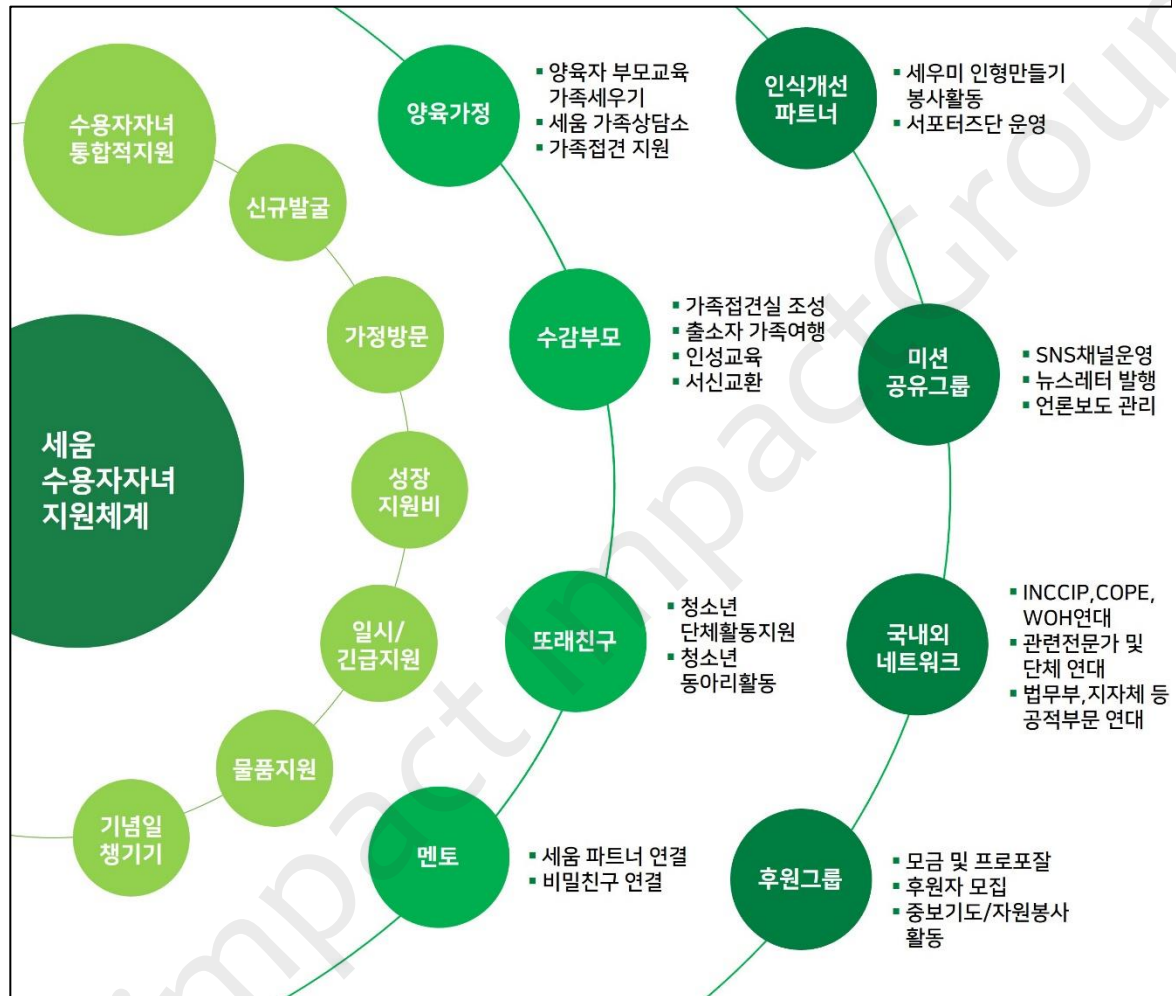
수용자자녀 지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전국의 54개 교도소, 구치소, 공공기관, 아동지원 관련기관 등의 신규사례 추천을 받거나 수용자 편지 및 가족의 직접 지원 요청으로 신규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신규사례가 접수되면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각 가정마다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고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규참여자로 결정되면 수용자 출소까지 성장지원비, 긴급생계비 지원, 선물지원, 멘토링, 청소년 동아리 등 당사자 활동을 통해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상담, 가족상담 및 양육자 교육, 면회지원 등을 통해 수용자자녀 가정의 가족 유대감 강화 및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3)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세움의 문제해결모델은 '수용자자녀' 개별지원으로부터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정책을 변화시키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방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3]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1) 대상의 혁신성

2015년 세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아동인권을 기반으로 수용자자녀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는 없었다. 기존 프레임은 수용자의 교정을 목적으로 수용자를 지원하는 접근방식으로 수용자자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움은 국내 최초로 수용자자녀지원을 아동인권중심의 아동복지관점에서 접근했다.

세움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잊혀진 제2의 피해자'로 그림자처럼 묻혀 있던 수용자자녀의 인권상황을 알리기 시작했다. 세움이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수용자자녀를 통합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최초의 전문 기관이라는 대상의 혁신성이 있다.

2) 민관협력 거버넌스 접근을 통한 정책변화의 혁신성

세움은 법무부, 검찰청, 교정기관 등 공공기관과의 적극적 민관협력을 통해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법무부와 개별교도소를 통해 수용자자녀를 추천 받고 수용자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7년에는 세움에서 교도소 내 면회환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아동중심의 면회환경을 구축했다.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구축 시범사업과 공간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교도소에 배포하였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전국 54개 교도소 중 47개의 교도소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이 마련되었다.

또한 2021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MOU를 체결 부모의 구속초기 수용자자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세움은 이와 같이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의 변화까지 이루어내는 혁신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3) 접근방식의 혁신성

세움은 그동안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만나고 지원한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연구, 다양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등 활동을 통해 수용자자녀지원 기관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사업초기 수용자자녀지원에 대한 이해조차 전무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세움은 수용자자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실천모델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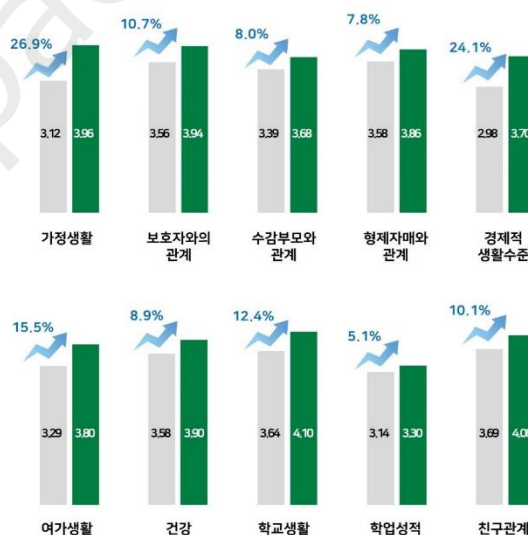
수용자자녀의 아동인권옹호,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수용자자녀 실태 및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적 실천의 네 가지 축으로 균형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등 세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움은 '작지만 강한조직'으로 복지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와 적극적 협업, 유연성을 가진 열려있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3년만에 안정적 운영이 가능했다..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본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성공한 경험에 대해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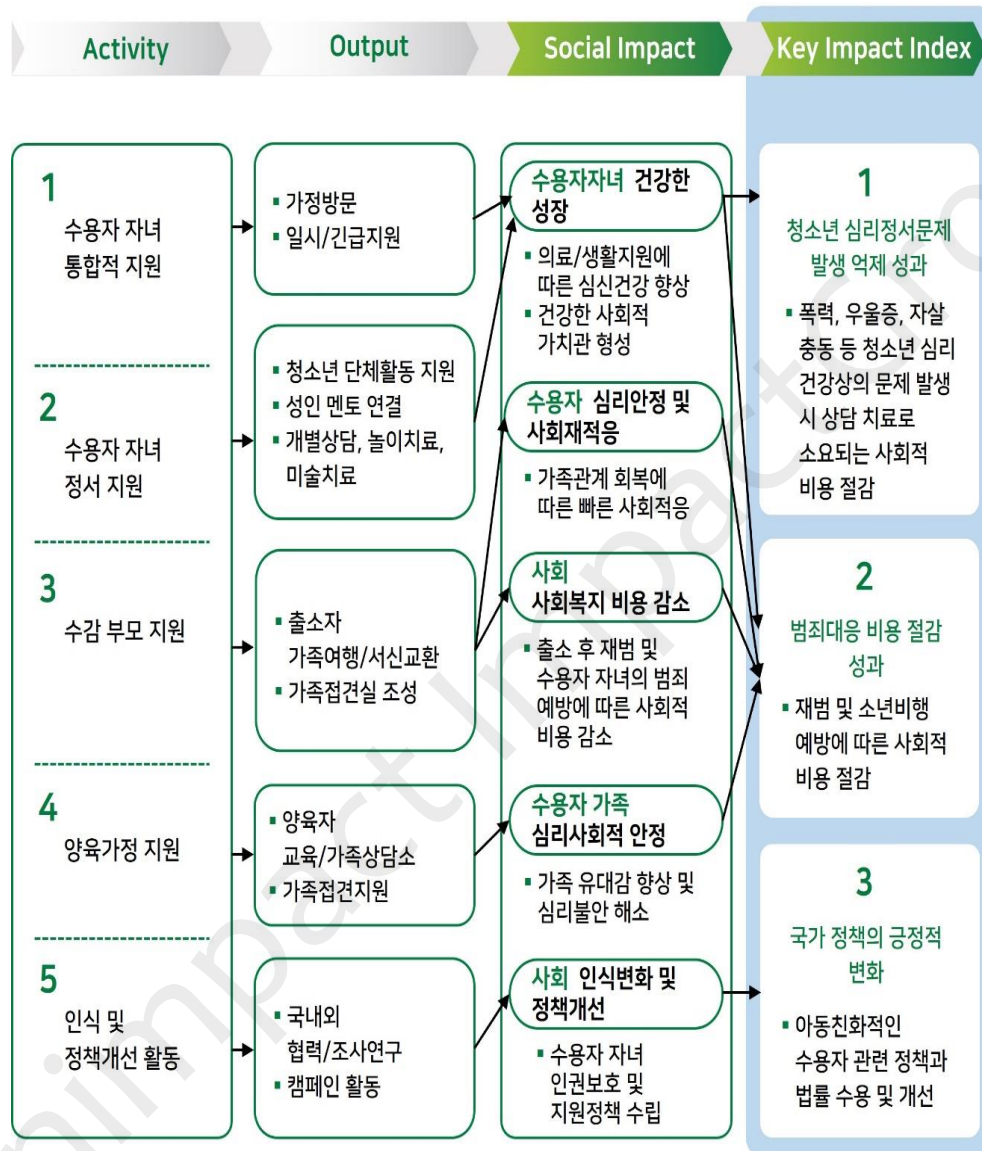
- 1) 국내 최초로 아동인권 관점에 근거한 수용자자녀 지원사업을 시작, 2018년 서울변호사협회로부터 '시민인권상'을 수상, 201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제 1회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복지부문 대상 수상, 2021년 포스코 청암재단의 사회봉사상 수상 등으로 수용자자녀 지원의 필요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 2) 2017년 국내 최초 수용자자녀 현황 국가통계구축을 통해서 2019년부터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입소 시 자녀현황 조사 의무화가 시작되는 초석을 마련했다.
- 3) 국내 최초로 교정시설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시범 설치하였다. 이후 법무부에서 동일한 매뉴얼과 모델을 도입하여 2021년 현재 전국 교정시설 54개소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47개소가 설치 수용 부모를 만날 때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인식개선 활동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 및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여 2019년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개정(제41조 3항(미성년자녀는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 제53조 2(수용자의 미성년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1항 신설되었다.
- 5) 2020년 법무부 교정본부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TF' 참여 2021년 법무부 서울지방법정청 내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 신설로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 6) 수용자 자녀 통합적 개별지원을 통해서 수용자자녀들의 유의미한 성장변화의 Impact가 있었다.



[그림4] 세움의 프로그램 참여전·후 수용자자녀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 2021

2) 세움의 프레임워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측정(2020년) 결과 참여 아동의 심리정서문제 발생 억제, 범죄대응 비용절감 효과, 국가 정책의 변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Social Value Map



[그림5] 세움의 사회적 가치 맵

■ 제3장 미래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위기 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온(ON)' 구축사업

1. 더 가까이 더 깊게

1) 더 가까이

2년전 정윤(가명/고1/여)이와 가족을 처음 만났습니다. 신규가정방문을 위해 꼬박 하루를 걸려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만난 날, 한낮에도 불을 어둡게 꺼두고 서울에서 손님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좁은 거실에서 정윤이 삼남매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윤이 아버지가 수감되고 어머니 홀로 파트타임 일을 하며 삼남매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가정폭력과 힘든 환경 속에 정윤이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윤이도 학교심리검사 결과 중등도의 우울증과 높은 자살 충동으로 위기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윤이 가정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무거운 삶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경상권 통합지원센터가 오픈 되고 몇 개월이 지나 정윤이 소식을 들었다. 정윤이가 경상권 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한동대 대학교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티로 참여하며 매우 밝아지고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처음 정윤이 가정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도 신경이 많이 쓰였던 기억이 난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좀 더 촘촘하게 가까이 만나며 집중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케이스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과는 워낙 먼 지역이라 정윤이를 자주 만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정윤이 역시 세움에서 제공하는 세움파트너나 청소년동아리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런 정윤이가 경상권 통합지원센터가 오픈하며 세움의 존재에 대해 더욱 가까워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 안에서 세움이 정윤이 가정의 상황을 좀 더 가까이 살필 수 있었고 정윤이가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정윤이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저 반갑기만 하다.

정윤이 소식을 들으니 거리적 한계를 줄이고 지역 안에서 가까이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만나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지난 7년간 아동복지 관점에서 국내 유일하게 전국의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만나며 지원한 세움의 역할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가까워서 촘촘하게 만나 지원하는 체계와 토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경상권 통합지원센터가 오픈하고 나서 세움은 2021년 MOU를 체결한 부산지방검찰청 및 부산구치소와 더욱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업하며 경상권 중심의 구속초기 수용자 자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에 시범 운영한 수용자자녀지원팀이 **2022년에는 전국 4개지방교정청(서울지방교정청(강원,수도권), 대구지방교정청(경상권), 광주지방교정청(전라권), 대전지방교정청(충청권))에 확대 운영되면서 각 권역 안에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세움과 협업하며 수용자 자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상권 통합지원센터가 오픈되면서 세움은 경상권 내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해 대구지방교정청과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교류와 협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올해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경험한 것 같이 세움은 지역 안에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위기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촘촘히 만나며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고 한다. 본 사업을 통해 세움은 기존에 서울 수도권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각 권역별로 확대 비수도권 수용자자녀들이 지역 안에서 개별적 집중지원, 멘토링, 당사자활동 및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세움온(ON)'**을 구축하고자 한다.

2) 더 깊게 -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

세움의 수용자자녀 지원사업의 사회적가치측정 결과에 따르면, 세움의 지원을 받은 수용자 자녀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후 가정생활, 보호자와의 관계 등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위기실태조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와 비교해보면,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에 대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참여 전에는 위기 취약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참여 후 **일반 청소년의** 응답 수준으로 변화하였다(사회적가치측정 p45).

부모의 수감 후 갑작스런 양육 환경의 변화는 수용자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한다. '가해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으며 위기를 경험하는 수용자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와 지지체계 안에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자원과 기회를 더 가까이 더 깊게 제공하려고 한다.

2. 더 많이 더 넓게

1)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

가족의 수감으로 수용자자녀와 가족은 '범죄자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편견 앞에 위축되기 쉽다.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감은 수용자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자기자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들며 우리사회 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자신을 숨기고 살아간다.

가족과 나를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 가족문화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수용자자녀와 가족이 마치 가해자가 된 것과 같은 죄책감과 수치감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체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해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고 더욱 큰 위기 앞에 놓이기도 한다. 잊혀진 피해자인 수용자자녀는 부모의 죄로 인해 사람들의 비난과 편견을 두려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비대면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지원체계 안에서는 선뜻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수용자자녀와 가족이 비대면 상담을 받으며 당면한 위기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의 수용자자녀 지원공간이 필요하다.

가상공간 안에서는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수용자자녀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통하여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담장 안과 밖을 연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 19 팬데믹은 오프라인 모임의 한계성을 드러냈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참여자들의 온오프라인의 유연성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시대임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움은 2022년 하반기 게더타운 안에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 자녀 상담, 활동, 교육 메타버스 학습놀이터]를 구축하고 오픈하였다. 오프라인에 자신이 수용자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거나 지역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익명의 수용자 자녀들이 세움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와 창의적 활동,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수용자 자녀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2023년에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 비대면 콘텐츠 개발로 인식개선 활동 확장

세움은 그동안 수용자자녀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프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온라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참여하며 수용자 자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콘텐츠와 활동을 경험하며 수용자자녀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

나아가 수용자자녀 지원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여 수용자자녀지원 법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수용자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세움은 임팩트 있는 성공경험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한계,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깊게”를 통해서는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 “더 많이 더 넓게”를 통해서는 수용자자녀 인권옹호와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함으로 수용자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의 미션을 수행하려고 한다.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의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1.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촘촘한 Community 구축을 통한 위기수용자자녀의 접근성 확대

부모의 수감과 동시에 수용자자녀들은 다양한 위기환경에 노출되면서 경제적 빈곤, 심리 정서문제 등 부정적 경험을 하며 자칫 청소년 비행, 범죄의 대물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이고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움의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는, 세움의 수용자자녀 지원 사업이 수용자자녀의 심리정서문제 발생을 억제하고 가족해체를 방지하며 가족관계 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 경상권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면서 경상권 내 신규 수용자 자녀의 수가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정기지원으로 연결된 신규 가정의 수가 11가정인데 비해, 2022년 4월 경상권 통합지원센터가 세워져 10월까지 7개월 동안 정기지원으로 연결된 신규 가정의 수는 25 25가정으로 약 227퍼센트 증가하였다. 이는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위기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권역 내에서 직접 지원하고 활동하는 것의 임팩트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기수용자자녀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p 109).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직접 지원할 수 밖에 없었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Local의 4개 권역과 가상공간 운영으로 수용자자녀의 접근성 확대를 통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2. 가족관계회복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통합

위기 수용자자녀들이 각 지역 내에서 집중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받으면서 긴박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족은 수용부모가 출소 후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가치측정에 따르면 세움의 지원으로 수용자자녀의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가족관계회복은 강화를 통한 가족해체를 방지한다.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정과 사회적가치를 창출한다.

3. 수용자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생태환경 변화

그동안은 수용자자녀 인식개선 캠페인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초기인 2015년에 비해 현재 수용자자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 안에서 수용자자녀에 대한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회적 편견이 우리 사회 내 깊숙하게 존재하고 있다.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수도권 외 전국 4개 권역 중심으로 각 지역 내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가상공간의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수용자자녀와 가족 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일반시민들이 수용자자녀 인식개선 활동 참여를 통해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2022년에는 세움 리브랜드 작업을 통해 세움의 존재 이유를 모든 구성원들과 질문하고 합의하며 동일한 언어로 고백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세움 브랜드이미지(BI)와 홈페이지를 새롭게 재구축하였다. 기존에 일방향적인 소통의 홈페이지였다면 새롭게 구축된 홈페이지와 가상공간은 스마트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세움과 수용자 자녀와 가족, 일반시민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용자 자녀의 인권옹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생태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정립된 리브랜딩을 기반으로 보다 확대된 시민 소통을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 '디지털 사업부'를 신설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을 통한 잠재후원자 확대, 온라인 광고 집행, 후원자 관리 체계화 등 수용자 자녀의 지지기반 확보 뿐만 아니라 후원자 증대를 통한 조직의 재정적 안정성도 도모한다.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Scale-Up 이란?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Scale-Out 이란? 조직을 분화/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평적 방법

세움 사업의 효과성은 참여자와 가족들이 지원 전과 후에 보여준 변화와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제 세움은 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지방에 거주하는 참여자의 매년 늘어나는 지원 요청과 꾸준한 인식개선과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실로 나타난 제도권 안에서의 협력 모델의 시행은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5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가상 공간의 구축 및 활용은 세움의 성공 경험을 확장하여 지역으로 인해 생기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일이 될 것이다.

온오프라인의 상호보완적인 만남으로 수용자자녀의 서비스 접근성과 낙인감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용자자녀들을, 더 깊게(Scale-Out), 더 넓게(Scale-Up) 만날 수 있다. 현재 당면한 지역의 한계로 인해 생기는 문제의 해결, 곧 세움이 2025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권리옹호와 플랫폼 강화 및 전문화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위기 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세움 온(ON) 구축사업의 단계별 확장과정은 다음과 같다.

위기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스케일아웃을 통한 스케일업 단계

스케일업 단계	준비기	정착기		안정확대기	
	2021	2022	2023	2024	2025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구축				
추진과제		지속가능성 탐색기		실행기	
타겟인원 (직접지원) 11,000명	월150명(1.4%)	월200명(1.9%)	월350명(3.2%)	월500명(4.6%)	월600명(5.5%)
		-경상권 50명 추가	-전라권 50명 추가 -충청권 50명 추가	-서비스 인원 증가 (지역별 증가)	-지역별 서비스 150명*4개권역
권역센터 구축	-서울·수도권 중심	-경상권 권역센터 구축 -권역별 사회적 지지체계구축 준비	-전라,충청권 권역센터 구축 -권역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권역센터 안정 운영 -권역별 사회적 지지체계 안정	-스케일업 확대기

디지털 기술 활용	-블로그, 홈페이지, 뉴스레터 -유튜브, 세움TV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가상공간 구축 -세움 후원 및 사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상공간 확대활용 -세움 데이터베이스 활용도 강화 -디지털사업 강화	-가상공간 및 통합 데이터 베이스의 안정적 운영	-스케일업 확대기
인식개선/네트워크	-인식개선 성과측정마련 -인식개선 캠페인 -국내외 세미나	-가상공간 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 및 시행 -지역 내 캠페인 -국내외 세미나	-인식 개선 캠페인 확대운영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네트워크 -국내외 세미나	-지역별, 인식개선 캠페인 콘텐츠 및 운영방안의 다양화 -국내외 세미나	-INCCIP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한국진행)
정책변화	-정책변화 측정도구 마련 -정책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정책변화를 위한 협의체 실행	-조사연구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법제도 준비	-법제도화 실행 및 마련	-법제도화 정착

2022년에는 브라이언 임팩트 지원으로 세움 사업의 사회적가치측정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 진행한 세움 5주년 사업의 사회성과 측정 이후 follow-up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장기적으로 발생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임팩트 관리 템플릿'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아래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진행중이다. 사회성과측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세움 사업에 반영하고 수용자 자녀의 인권옹호와 인식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팩트 관리 템플릿]

1. 시민 인식/행동 변화

목적	세움의 활동을 경험한 시민의 인식 및 행동 변화의 정도를 측정
측정방식	설문조사 진행 후 일반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아동복지연구소, 2022)와 비교
측정대상	세움의 활동 및 캠페인을 접한 후원자, 자원봉사자, 학생, 콘텐츠 독자 등

2. 인적/지적 자본에 미친 영향

목적	세움의 존재와 활동이 학계/학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 함. 특히 세움의 사례연구, 실증연구로부터 파생된 영향을 파악하려 함
측정방식	KCI(국내 학술지 인용색인 정보포털) 검색을 통해 도출되는 논문(피인용논문 포함) 인용수, 연도별 논문 주제 등 탐색

측정대상	수용자 자녀, 수용자 가족, 수용자 아동 등의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논문
3. (지역)사회적 자본에 미친 영향	
목적	세움의 지역거점센터 확산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려함
측정방식	이해관계자 및 네트워크 형성 양상을 설명적으로 제시
측정대상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네트워크 기관, 단체, 기업, 조직 등 포함

1) 서비스 지원 참여자 수의 증가로 위기 수용자자녀의 사각지대 감소와 수용자자녀의 인식개선 확대

2015년 처음 시작한 수용자자녀지원 사업은 2022년 11월 기준 매월 약200명의 수용자자녀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1차년도에는 기존의 서울 수도권 뿐 아니라 대구지방교정청을 중심으로 경상권의 수용자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월평균 약50명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가상공간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약200명 정도의 수용자자녀와 가족, 후원자, 일반시민이 가상공간에서 소통하며 활동한다.

2차년도에는 대전지방교정청을 중심으로 충청권의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 및 확대 운영한다. 3차년 상반기 광주지방교정청을 중심으로 전라권의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발굴에 집중한다. 각 권역별로 월평균 50명의 수용자자녀를 추가로 지원하여 전체 약 350명 정도가 지원받게 된다. 세움의 디지털채널이 다각화됨에 따라 홈페이지, SNS, 카카오톡, 유튜브 뿐만 아니라 1차년에 구축된 가상공간도 통합캠페인의 참여 채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한다.

3차년도에는 광주지방교정청을 중심으로 전라권의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확대 운영한다. 이렇게 전국의 4개 지방교정청을 중심으로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된 결과로 각 권역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용자자녀의 수가 최대 월 평균 500명까지 지원하고 최대 1,000명의 수용자자녀와 후원자, 일반시민이 가상공간을 포함한 온라인 채널(디지털 공간)에서 참여를 기획하도록 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지역 내에서 조직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도록 한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조사연구와 국내외 세미나를 통해 사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정책적 변화와 법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2) 지속가능성 및 출구전략

(1) 권역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권역별로 위기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지원하며 세움의 비전과 미션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한다. 운영위원회, 멘토, 자원봉사 등의 조직과 모임을 운영하여 수용자자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홍보와 인식개선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2) 경상권, 충청권 통합지원센터를 지역사회로 이관 시도

임팩트 그라운드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확장된 통합지원센터가 2 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움의 비전과 미션에 맞게 잘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수용자자녀 지원 사업을 세움과 협업하여 잘 이어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을 찾아 이관하는 것이 세움의 다음 단계이다. 세움에서는 24 년 인큐베이팅 작업을 통해 수용자자녀 지원의 역할이 지역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부동산 구입

세움은 2015 년 이후 사업의 증가로 인한 인력 증가와 세움온 상담실 운영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3 번의 이전을 하였다. 2023 년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비용이 두배로 증가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임대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1. 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참여 기회 확대

1) 온라인 상담

세움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용자자녀와 가족은 그 어느 대상보다 비밀보장에 민감하다. 당사자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사회적인 편견과 만나 점점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더 숨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역사회와 대면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준비가 되지 않은 참여자들에게는 가상공간이 안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세움은 2022년 세움 브랜딩 리뉴얼 작업을 함과 동시에 쌍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홈페이지 개편 이후 수용자 가족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요청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아동 청소년의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매번 모이는 인원과 장소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상공간안에서 청소년 참여자들은 게임을 만들어서 함께 즐길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으며, 마음껏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올리고, 웹툰, 애니메이션, 사진, 음악, 영화 등 여러가지 매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권역 별 모임에서 나아가 전국에 있는 수용자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가상공간에서 캠프를 즐길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양육자의 부재와 역할 부족,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수용자자녀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과 진로지도도 가능하게 한다.

3)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한 세움으로 탈바꿈

수용자자녀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로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각종 증빙서류들을 쉽게 주고받으므로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 참여를 높일 수 있다. 가상공간 등의 구축과 활용은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 운영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현재 세움이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활동을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시공간을 뛰어넘는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움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뉴스레터, 카카오톡과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세움의 미션에 동참하는 많은 후원자, 멘토를 교육하고 훈련하여 매칭 시키는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참여자와 참여자간, 참여자와 후원자, 각 협력하는 민관의 기관들이 연결되어 소통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세움 10주년이 되는 해에 세움이 이사국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제단체 INCCIP(International Coalition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에서 세움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역시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수용자자녀 지원 데이터 관리 체계화

세움은 매년 증가하는 참여자와 후원자,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수요와 실태, 지원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국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지원센터가 권역별로 확대될 때 지역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객관적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와 참여자 간의 결연과 서비스 내용을 효과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참여자와 후원자 관리의 디지털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후 조사연구, 성과측정 및 모금 홍보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3. 데이터 중심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잠재적 후원자 발굴

온라인 채널의 다각화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 수용자자녀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은 보다 스마트하게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디지털 사업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적인 홍보와 모금 전략을 수립하려고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분절되어 진행되었던 기존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방식을 개선하여 측정 가능한 캠페인 목표를 수립해 성과분석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한정된 자원 하에서 보다 효과적인 캠페인을 기획해 나갈 것이다. 이는 조직의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금 전략과 연결되어 잠재 후원자 확보를 위한 활동 기반이 될 것이다